

차광선

무안녹차 '초의 생가차' 출시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조인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탄생지 전남 무안에서 생산한 녹차가 처음으로 출시됐다.

무안군은 1998년 삼향면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 인근 차밭 조성으로 현재까지 6개 읍면 17ha의 차밭을 만들어 왔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는 '초의생가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처음 수확한 녹차에 '초의생가차(岫生家茶)'란 상표를 붙여 판매에 나섰다. '초의생가차'는 5월 28~29일 제219주년 기년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때 첫선을 보였다.

초의생가차 영농조합법인 차승오 대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무안현이 포함된 전라도 28개 군현에 차를 재배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600여년 전부터 무안 지역에서 녹차 생산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21ha로 늘리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등 초의생가차를 무안의 주산작목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사군자 소재 '다악' 8집 발매



한국차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주최 예대 교양대학원장)가 펴내는 창작 다악 앨범 '다악(茶樂)' 8집이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지난 해 11월 열린 '2004 다악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다악 네 곡이 담겨 있다. '사군자(四君子)'에 스민 다향(茶香)을 주제로 '매-복밭을 깨우는 매향, 설중군자(작곡 박일훈)' '란-깊은 계곡의 가인(작곡 백승우)' '국-흰 서리 속에 피는 만향(작곡 김정수)' '죽-만파식의 세한고절(작곡 이상규)' 등 우리 차와 어울리는 네 곡의 국악 창작 실내악곡이 수록됐다.

한국차음악연구회는 1998년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 놓기'의 일환으로 창작 다악 발표회를 열고 이를 앨범으로 발매하는 등 다악 장르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茶는 차다?

혜우 스님 '차는 냉하지 않다' 기고 후 큰 관심



다경·동다송·본초강목 등 '차고 음(陰)하다' 전해 박동춘 소장 "성질 냉하나 제다 과정서 중화된다" '속쓰림'을 '냉하다'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기 때문

▷ 차는 본래 냉하다?

차의 성질이 차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근거로 다서나 한의서에서 차의 성질을 대체로 '고감미한(苦甘微寒)' 즉, 차는 그 맛이 쓰고 단맛이 있으며 성질은 차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든다.

〈다경〉에서는 "차는 본래 냉하다(茶之爲用味至寒)"고 했고, 〈동의보감〉에는 "차나무의 성질은 조금은 차고 그 맛은 달고 쓰면서 독이 없는 식물이다. 그 성질이 쓰고 차서 기운을 내리게 하고, 체한 음식을 소화시켜 준다"고 적혀 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차는 그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은 차고 음(陰) 중의 음으로 가장 열을 잘 내린다. ... 열은 한기에 의해 내리므로 따뜻하게 마시면 차는 열기를 빌려 열을 발산시켜 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본초목부〉에서도 "차의 성미는 약간 차가우나 독은 없다"고 전한다.

차를 음양(陰陽)의 원리로 설명하는 책에서도 차는 '음'으로 설명된다. 〈탕액본초〉

에서는 차를 '음 중의 양(陰中之陽)'이라 말하고 있다. "차의 쓴맛이 기(氣)를 내리는 것은 음이지만, 그 맛이 열기(薄) 때문에 어딘가 잘 통하므로 양(陽)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명대 의학서인 〈본초회편〉에서도 "차를 채취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가 짙은 날 때이므로 봄의 상승 기운을 바로 받아 비록 그 맛은 쓰지만 기는 열이 음 중의 양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근거로 한의학자들은 차가 속이 냉한 사람이나 손발이 찬 사람,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를 공복에 마시면 차의 성질이 폐에 들어가 비위(脾胃)를 차게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너무 뜨거운 차는 인후와 식도, 위를 자극하므로 56℃ 이하로 낮추어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 '차'는 차다. 그러나 차는 평(平)하다?

혜우 스님은 "차의 본래 성질은 냉하나 차로 만들어진 후에는 그 성질이 평(平)해진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에서 생지황

"난 체질이 찬 편이라 녹차가 안 맞아."

'차는 냉(冷)하다'는 말은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말일 것이다. 그러나 본지(528호 15면 특별기고 참조)에 혜우 스님(혜우전통차 제다교육원장)이 '차는 냉하지 않다'는 주제의 기고문이 나간 후, 차의 성질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다서나 의학서에서는 차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제다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을 써서 속지황으로 만들거나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본래의 성미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차도 뜨거운 솥에서 튀고 식히기를 반복하는 제다 과정을 거치며 그 성미가 바뀐다는 것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역시 "차 자체는 냉한 성질이 있지만, 제다 과정을 거치며 중화(中和)된다"고 말한다. 차의 냉기를 중화시키고, 그것이 몸에 적체(積滯)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다의 최대 관건이며, 냉한 기운을 없애면서도 담박, 소화한 맛을 내기 위해 350~400℃의 고온에서 열기로 발효 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하고 수분을 건조시키는 과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소장은 "제다를 통해 차의 냉기가 100% 극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를 뜨겁게 마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과 30~4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음다법은 열탕(熱湯)이었으며, 이는 차의 냉기를 중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차인들은 차를 80℃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우릴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차의 냉한 기운을 중화시키지 못하는 음다법입니다."

▷ 성질이 차다=속이 쓰리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차=냉한 음료'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차의 성질이 차다'는 말과 '차'를 마시면 속이 쓰리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차는 소화를 돕고 지방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위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소가 있는데, 차의 폴리페놀 성분이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다량의 위산을 분비하게 함으로 빈속에 차를 마셨을 때 속이 쓰린 느낌을 받게 된다. 박동춘 소장은 "제다 과정에서 살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의 특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차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고 말한다.

도원석한의원 도원석 원장(前 한서대 한방병원장)은 "일부 한의학자들이 차가 냉한 음식이므로 몸이 냉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과학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도 원장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차의 성질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은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만 문제시 되는 것은 일부 매스컴이 이를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확산하기 때문"이라며 "차의 성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hapia.com

조선시대 ⑥



전대의 선비 다풍이 심오한 정신 세계에 크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도학 정신과 안민낙도의 사상이 차의 정신과 결부된다. 이 때에 김시습, 남효온, 정희량 등의 차인들이 나와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심취해서 도학과 차 그리고 현묘한 선(仙)사상을 조화시켜 차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출했다. 특히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는 그 심오한 세계가 측량하기 힘들 정도다.

한편 정계는 훈구파와 신진 사림파가 대립하던 중 결국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이어져 사림파의 젊은 학자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때 많은 차인들이 죽거나 몰락했지만 그래도 산림 속에 묻혀 계회 같은

청자수기와 부수다완 등이 물품(物目)에 들어 있다.

④ 11월에 이선무(李宣茂)는 다례간소화를 건의했다.

⑤ <다부>는 한재 이목이 쓴 것으로 성리학의 도학정신과 노장사상을 차의 깊은 뜻에 잘 융화시켜 군자행(君子行)을 지향하는 자신의 의지를 노래했다. 우리나라 다서로서 가장 오래 되고 세계 어느 책에서도 보기 힘든 차의 정신이 담겨 있다.

⑥ 고려 때 불교 융성기의 폐단을 막다 하여 승려들과 여염집 여자 신도들의 만남을 적극 차단한 조처의 하나다.

⑦ 전예경: 명대 문인으로 차를 아주 즐겨하여 <자천소품(煮泉小品)>

도학, 차, 선사상 합친 새로운 차정신 나와 무오·갑자사화 거치며 선비 다풍 위축

모임을 통해 차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져 불가의 음다 문화는 물론 사찰 인근에서 산출되던 차의 생산량도 점점 감소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많은 차인들이 차를 즐기고 다서(茶書)를 저술했으니, 이 시기에 나온 차에 관한 이론들은 산채(散茶)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차 생활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① 서경덕(1489~1546): 수차례 벼슬을 고사하고 은거하여 차와 술을 즐긴 차인이다.

② 정사옹(1491~1570):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온 차인으로 다구(茶壺) 같은 용어가 글에 나온다.

③ 유구국 천장이 내비하였는데

5000여자를 썼다.

⑧ 조지리: 명대 문인이며 <다보속편>의 발문을 쓴 차인이다.

⑨ 장원: 평생 차를 마시며 남긴 1500여자의 <다록>은 우리에게 <다신전>으로 남았다.

⑩ 주월번과 성시대는 명대 같은 시대 사람들로 <다사취집(茶事彙輯)> 4권을 집필했다. 일명 <다수(茶數)>라 한다.

⑪ 호안: 명대 사람으로 <다마유고(茶馬類考)> 6권을 저술했다.

⑫ 무야소구(1502~1555): 차와 가도(歌道)를 결합하여 다도를 중흥시킨 차인이다. 춘전주광(村田珠光)의 수제자로 그의 자득의 정신을 심화시켰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489 서경덕(徐敬德)의 출생 ① 왕이 광릉에 행차해 1491 사전세(寺田稅)를 관청에서 받음 정사옹(鄭士翁)의 출생 ② 1492 사신맛이 다래 김종직, 남효온의 죽음 1493 김시습의 죽음 1496 유구국에서 다완 등을 보냄 ③ 원자탄신 축하에 차를 올림 이선무의 건의 ④ 1495 <다부(茶賦)> ⑤ 1497 일본통신사에 작설을 내리다 1503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⑥ 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1505 사사전(寺田田) 폐지	@ 전예형(田藝衡)의 활동 ⑦ @ 조지리(趙之履)의 활동 ⑧ 1494 귀천(貴川) 모족 평정 @ 정원의 활동 ⑨ @ 주월번, 성시대의 활동 ⑩ 1502 호안(胡安)의 출생 ⑪	1502 무야소구(武野燭圃)의 출생 ⑫

▶ 표는 약(about)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 : 011-379-0667 | 충청도 : 011-327-7697
강원도 : 010-3044-9708 | 경상도 : 010-9697-8580
경기도 : 019-690-4018 | 전라도 : 011-368-0667

조은 칼라지붕공사